

# 광양항 제2중흥부두 '무역 중흥' 이끈다

### 5000t급 2개 선석 규모...이달부터 외항 화물까지 취급

### 광양항~인도 왕복 컨테이너선 5400TEU급으로 교체

광양항 신설 부두인 제2중흥부두가 지난 11일 외항화물 하역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광양항과 인도를 오가는 컨테이너선박 3척이 대형 선박으로 교체됐다.

◇광양항 제2중흥부두 본격 운영=지난 2012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총 사업비 134억원을 들여 5000t급 2개 선석으로 건설한 제2중흥부두는 지난 4월 15일부터 내항화물을 취급해 왔다.

이후 광양항이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보안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외항화물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제2중흥부두의 연간 하역능력은 액체화물 44만t과 일반화물 43만t 규모이다. 주요 이용 고객은 액체화물 화주사인 제일모직주, ㈜신성탱크터미널, 이일켄주, ㈜호남 등과 일반화물 화주사인 삼남석유화학주, 태경화학주, 대한해개발주 등이다.

특히 일반적인 화물 취급 이외에도 항만 내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용 자재 중 길이가 긴 기자재를 육상에서 해상으로 반출할 수 있는 부두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부두 내에는 1만5392㎡의 야적장을 갖추고 있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광양항~인도 항로 대형 컨테이너선 투입=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에서 인도를 연결하는 FIX(Far East India Express) 서비스 라인에 기존의 4200 TEU급 대신 5400 TEU급 신조선 '케이엘티씨 뽀비호'를 대체 투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해운은 해당 지역간 교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4200 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지난 4월에 '에이지에스 마르코폴로호', 5월에 '에이지에스 에버리스트호' 등 5400 TEU급으로 교체한 바 있다.

이로써 이 서비스 항로에는 고려해운의 5400 TEU급 3척, 한진해운의 4200 TEU급 3척 등 모두 6척을 운항하게 됐다.

한편 FIX서비스는 광양항에서 주 1회 운항하며 중국 상하이와 닝보, 대만 까오슝, 싱가포르, 인도 나바샤바와 피파바, 파키스탄 카라치 등을 거쳐 말레이시아 포트벨랑, 중국 칭다오를 경유하는 항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회춘탕은 SNS를 타고’ 청자축제를 앞두고 강진 팸투어에 나선 블로그 기자단과 SNS 서포터스들이 지난 11일 ‘회춘탕’을 시식하고 있다. ‘회춘탕’은 황철·가시오가피 등 12가지 한약재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 전복과 문어, 닭을 함께 넣어 끓이는 보양음식이다. <강진군 제공>

## “창조경제의 핵심은 농촌”... 담양 ‘친환경 지속가능 발전 포럼’ 성료

### 200명 참가...국내외 사례 소개

(제)글로벌 에코포럼 담양(이사장 이만희)은 지난 11일 담양리조트에서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와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 제4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석학 및 학계전문가, 환경 분야 인사,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환경합리원 이상은 회장의 ‘지속가능발전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유럽과 미주, 일본, 국내 등 8개 사례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포럼에서는 ‘농촌에서 어떻게 친환경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핵심 주제로 다뤄 농촌과 농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전략이 되어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러닝 시스템 운영 방안’에 관한 워크숍과 함께 ‘2015 담양 세계 대나무박람회’ 성공전략의 일환으로 EXPO운영에 관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담양군의 핵심전략인 생태도시 정책을 전국 최고 수준의 추진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지속가능발전과 생태도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장으로 확대하면서 담양을 국제적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자리매김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 전북 소식

## “오방색 빛으로 옛 도심을 꾸미자”

### 전주 도시 재생 아이디어 공모

### 전북대 김진·손유리씨 최우수

전주시가 도시 재생을 위해 ‘시민이 그리면 전주시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로 연 공모전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전주시는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 전북대 김진·손유리씨의 ‘한 빛, 전주에 빛을 더하다’라는 작품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하고 총 14건을 입상작으로 뽑고 8월 시상하기로 했다.

이 아이디어는 한국 전통문화전당, 영화의 거리, 동문 문화거리 등 옛 도심의 공간을 오방색(청·적·황·백·흑) 빛으로 꾸미는 것을 뼈대로 했다. 오방의 각 기

운을 나타내는 오방색은 각각 동쪽, 남쪽, 중앙, 서쪽, 북쪽을 의미한다. 이 오방색을 이용해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어 불이 꺼지는 중앙동·고사동 등 옛 도심에 빛으로 꾸며보자는 내용이다.

또한 남부시장과 전주천의 연계를 위해 그 사이에 산책로를 조성,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자는 ‘남부시장-전주천 하나로 워다’가 우수작으로 뽑혔다.

예술인들의 작업장이 밀집한 동문거리 주변의 빈 건물과 땅을 예술인-주민-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이나 소통의 장소로 만들자는 제안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오색(五色) 전주, 다시 피어나다’ 등도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 ‘정읍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 품평회’ 성료

### 감곡면 강길호씨 대상 수상

지난 10~11일 정읍시 연지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정읍 단풍미인 씨없는 수박 품평회’에서 강길호(감곡면·사진)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상은 송상기(농소동)씨, 은상은 유병택(상동·장현기(상동)씨, 동상은 최라진(하북동·최라삼(농소동)·고제대(북면)씨가 각각 차지했다.

정읍시수박연구회(회장 이석범)가 주관한 이번 품평회에는 65점이 출품돼 당도와 과형비, 무게, 과피 두께 등 심사를

거쳐 우수 수박을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강씨의 수박은 당도 13.3브릭스, 무게 11.8kg, 선명한 과피색, 뚜렷한 줄무늬 외형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고 크기의 수박을 뽑는 왕수박 상에는 18.2kg의 수박을 생산한 최명환(시기동)씨가 수상했다.

이 밖에도 수박연구회 여성회원들이 수박 소비촉진을 위해 수박을 이용해 만든 수박김치와 수박 카나페, 수박화채, 수박 샌드위치 등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군산서 해병대 최초 전투 승리 기념식

한국전쟁 개전 초기 해병대가 최초로 참가해 승리를 거둔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가 군산에서 열렸다.

해병대전우회 전북연합회와 군산지회는 지난 12~13일 군산시 은파호수공원에서 해병대 최초 전투인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현역 해병대원 150여명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사진 전시회와 군복 착용 체험, 전투식량 시식 체험, 문화예술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해병대전우회 관계자는 “군산·장항·이리지구는 해병대가 최초로 전투에 참가해 빛나는 승전을 기록한 역사적 전적지”라며 “당시 생명을 바친 37명의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행사를 통해 호국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는 1950년 7월 초 충남 천안을 점령한 북한 제13연대가 호남지역으로 남하할 때 7월 16일 군산에 상륙한 해병대 부대가 북한군의 금강진출을 저지한 전투로 기록돼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주)오천경매 / 오천개발

대표, 최선규  
문의, 010-3605-5000  
광주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특수물건

특수비법

만이 살 길이다!

- 특수물건(지분, 법/지, 유치권, NPL 등등)만이 정답입니다!
- 특수비법을 알아야 특수물건에 도전합니다!
- 입장/교육비 등 1200만원 투자 하십시오!
- 오직! 특수경매만을 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단, 상담후 본사가 결정합니다!